

기고



전 동 평 영암군수

2021년, 미래를 향해 내실을 다지는 한해로!

2021년, 신축년의 해가 밝았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나 현재의 국 내상황을 보면 어느 해같은 신년의 밝은 기운은 좀처럼 느끼기 힘들다. AI, 한파, 폭설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고 있지 않은 탓이다. 백신의 도입이 이루어진다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 여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츠 개발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롯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때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마냥 어려운 상황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 행사들의 개최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즐기차게 추진 중인 각종 기반 사업들이 본 궤도에 들어서며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난 해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그중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된다 고 볼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동·서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영암읍과 도시가스 수요처가 많은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 중심으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지난 해, 목표도시가스(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11월 26일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27억여 원을 투자해 삼호읍 세한대학교부터 영암읍 청소년수련관까지분관 24.6km, 공급관 10.8km, 총 35.4km에 정압기 1개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 토지의 사용 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 신속처리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며 추진해나가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역 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과의 긴

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업구역과 공사 일정 등을 세밀히 홍보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영암읍에만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완공되면 3천여 세대에 연간 총 30억여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산면 소재지인 독립원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40억여원이 투입되어 함께 추진될 예정이며 완료되면 영암읍과 함께 총 4천여 세대에 연간 총 40억여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까지 기대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진행되면 서 군 내에 원룸,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영암의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군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분야인 도시환경 및 정주여건의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져야 지역의 품격이 더욱 높아지고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건강한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며 현재로서도 도시가스 사업을 필두로 하여 코로나 19 등의 상황들과는 별개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그 성과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축제를 비롯하여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실을 다져간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빛나는 2021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service numbers like 1577-1366, 1399, 182, etc.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탈북민 개인정보 재북 가족 안위 관점 신중하게 접근하자.

행복한 삶을 간절히 소망해 목숨을 걸고 따뜻한 남쪽나라로 건너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입국 3만 6천여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전과 보호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정착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이라 흔히 부른다.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을 두고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온 그들이건만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이 낯설다보니 한국사회에 상당기간 적응에 애를 먹기도 한다.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남한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담당

하는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본 지면을 통해 탈북민 신변보호에도 관심을 바래보고자 한다. 최근 중앙지 신문지면을 통해 북한 관련 출판 도서에 탈북민의 실명과 직업, 탈북연도 등이 고소란히 노출되어 해당 탈북민이 신변안전에 불안감을 느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바 있다. 책에 기술된 내용은 과거 대학교 강의에 출강하여 말했던 내용을 책으로 집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범정까지 가면서 결국 피해 탈북민이 승소하여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당사자로서는 자신은 물론 북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심각한 우려가 많았을

것이다. 이처럼 탈북민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신상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되거나 유추하면 개인신상이 드러날 가능성 범위에 놓이게 될 경우 탈북민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안전에까지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탈북민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자신의 탈북 사실이 북한에 까지 알려지면서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받고 가족을 볼모로 협박과 회유까지 받을수 있는 만연의 경우다. 많은 탈북민들은 아직까지 북한에 가족과 친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민 개인의 신상정보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북한에서는 수많은 탈북민들로 인해 탈북민들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탈북한 탈북민의 신상정보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탈북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분단의 현실에서 남과 북이 현재도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 및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 단체 등 탈북민 관련 업무추진 부서 및 단체에서는 탈북민의 언론보도 자료와 사진제공, 인물특정 유추자료 제공 등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리하여 정보유출로 인한 탈북민들이 신변위험을 우려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